

(사건의 주요 정보, 기억해둬야 할 정보(앞으로 해결돼야 하거나 다른 정보들과 대조가 필요), 플레이어들의 선택, 살인 정황 혹은 동기)

※ 사건은 초호화 여객선 네필리타 호에서 발생했다

※ 네필리타 호

- 원래는 6시에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었으나 정박이 취소되어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
- 지금 바깥은 바람이 굉장히 세다
- 아래는 5층 객실의 구조도

		505호	506호	507호
501호	502호	503호	504호	

- 507호: 코퍼 맥그리거(피해자)의 방
- 501호: 셸록과 왓슨의 방
- 502호: 에블린 윌리엄(주부)의 방

※ 피해자 프로필

이름: 코퍼 맥그리거

성별: 남성

나이: 55

직업: 사업가(탄광 회사 사장)

가족: 독신

기타: 회사는 요크셔의 텔링리에 있음

- 돈을 밝히는 성격, 안 좋은 소문들이 많다
- > 이번 사건은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
- >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이유는 원한 때문으로 보인다

※ 507호

- 시체가 발견된 방.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양손발이 묶인 채 난도질 당해 죽었다
- 조명의 색은 약간 노란색이다. 이 방 뿐만 아니라 모든 객실이 그렇다
- 창 밖으론 갑판이 보인다. 여기로 이동하기는 힘들어 보인다.
- 시신: 양 팔다리가 침대의 네 기둥에 끈으로 묶여 있다
 -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
 - 가슴에는 수 많은 상처
 - 눈은 부릅 뜨고 입에는 하얀 천이 물려있다
 - 옷 아래쪽에는 맞은 멍자국들이 엄청 많다. 멍자국들이 생긴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선 오랜 시간 동안 맞은 듯
 - 가슴에는 칼자국이 다섯 번. 크기가 모두 다르다. 이것이 치명상으로 보임
 - 피해자의 팔을 묶은 매듭과 다리를 묶은 매듭이 서로 다르다
- 침대: 시트가 구겨져 있다. 몸부림의 흔적인 듯
 - 피해자를 묶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밧줄이 침대 근처에 떨어져 있다. 새 것으로 보인다
 - 침대 위에 칼이 떨어져 있었다
 - > 범인이 일부러 발견되라고 놓고 간 거 같다
 - 칼의 번호는 지워졌다
- 원탁: 주전자가 있다. 내용물은 물. 룸서비스라도 시킨 걸까?
- 의자: 고급 의자. 피해자 개인 물건인 듯
 - 옆에 찻잔이 떨어져 있었다. 찻잔 안에는 홍차가 몇 방울 남아있었다
- 옷장: 안에 금고가 들어있다
 - 금고는 청진기만 있다면 열 수 있다고 한다
 - 금고 안은 비어있었다
 - > 범인이 내용물을 가져간 듯
 - 금고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설치됐다고 한다
- 화분: 넘어져 있었다. 흙이 빠져나왔음
 - 다시 흙을 담아보니 화분을 가득 채웠음에도 흙이 남았다
 - 안에서 찻잔(피해자의 것과 같은 모양)이 나왔다

※ 용의자 1 프로필

- 이름: 에블린 윌리엄
- 성별: 여성
- 나이: 41
- 직업: 주부
- 가족: 독신
- 여행 목적: 관광
 - 정리를 잘 하는 성격인 듯
 - 옷은 평범한 중년 여성 일상복
 - > 상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게 수상하다

※ 502호

- 에블린 윌리엄(용의자 1)의 방
- 침대: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있다
 - 트렁크에는 차세트
 - 차세트에는 찻잔들(두 개)이 사라져있다
- 책상: 검은 수첩, 스노글로브
 - 검은 수첩은 그의 남편의 것이다
 - 그의 남편은 지질학자로, 성격이 다소 부주의한 사람이다
 - 부부의 사이는 좋았다

- 그는 맥그리거 탄광회사에게 광맥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
- 그리고 그는 일을 하던 도중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
 - 만약 코퍼 맥그리거가 에블린 윌리엄의 남편을 죽이고 그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차지했다면, 그것은 에블린 윌리엄의 살인 동기가 될 것이다

※ 용의자 2 프로필

- 이름: 찰스 조이너
- 성별: 남성
- 나이: 35
- 직업: 사진 작가
- 가족: 독신
- 여행 목적: 사진 촬영
 - 엄청난 골초인 것으로 보인다
 - 바다와 해변, 새 같은 자연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주장
 - 사실 그의 정체는 흥신소의 J.B. 코퍼 맥그리거를 감시하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
 - 의뢰로 이 배에 왔으나 에즈메이 요한슨의 승선 소식을 듣고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 그녀의 맞은 편 방에서 그녀를 감시했다고 한다
 - 그는 코퍼 맥그리거와 도박을 하다가 그의 다이아몬드를 알게 되었다
 - 만약 그가 코퍼 맥그리거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탐났다면 그를 죽일 동기가 될 것이다

※ 503호

- 카메라: 다소 크기가 큰 필름 카메라
 - 안의 내용물은 영수증과 각서
 - 영수증: '당신의 의뢰는 수리되었다' - J.B.
 - 각서: '만약 빛을 못 갚으면 금고 속 물건을 넘기겠다'
 - 코퍼 맥그리거
- 책상: 재떨이와 앨범과 상자
 - 재떨이는 비어있다. 냅킨은 살짝 젖어 있음
 - 앨범에는 건물과 자동차 같은 도시적인 사진들
 - 상자는 필름을 담은 상자, 3개의 필름이 가득 들어있다
- 서랍: 총 세 칸짜리 서랍
 - 위의 두 칸은 비어있다
 - 세 번째 칸에는 공구함
- 옷장: 여러 종류의 옷
 - 외투 속에서 방범 렌즈와 카메라의 사이즈에 맞는 특이한 렌즈가 발견되었다
 - 이것은 바깥에서 방범 렌즈 안쪽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제작된 특수한 렌즈라고 한다
- 바닥: 입구 근처에 삼각대의 흔적이 찍혀 있음

※ 용의자 3 프로필

- 이름: 헨리 워커
- 성별: 남성
- 나이: 41
- 직업: 보험 설계사
- 가족: 아내, 딸
- 여행 목적: 휴식 및 관광
 - 가족은 두고 혼자 여행을 했다고 한다

- 병풍은 그저 선물 받은 거라고 한다
- 사망 추정 시간에는 505호의 주인인 프레디 브라운과 얘기를 했다고

※ 504호

- 중국식 병풍
 - 천장하고 길이가 딱 맞음
 - 방음 소재
 - 옷장
 - 평범한 옷장, 옷들이 많다
 - 밑에 자물쇠 달린 서류함
 - 안에는 타자기로 쓴 서류들과 보험 증서들
 - 보험 증서 중 고객 이름이 '제임스 윌리엄', '아서 카빌', '알랜 요한슨'
 - 제임스 윌리엄은 에블린 윌리엄(용의자 1)의 가족일 것이다
 - 아서 카빌은 아직 알 수 없다
 - 알랜 요한슨은 에스메이 요한슨(용의자 5)의 가족일 것이다
- 책상
 - 서류: 이번 여행에 관한 서류
 - 스케줄: 일정이 잘 정리되어 있는 스케줄 노트.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커버. 우수 사원에게 주는 증정품이다
 - 안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스케줄 메모 사이로 특이한 페이지를 발견
 - 3rd F, 4th W, 4th M, 2nd Th
3rd Tu, 1st Th, 2nd Sa, 3rd Th, 1st Su
3rd W, 2nd F, 3rd W, 4th Tu, 2nd Th
MayDay
 - 'PUSH MAJOR NINTH'라는 뜻
 - 원탁: 차 주전자와 책
 - 차 주전자에는 커피
 - 책은 음악에 관한 책
 -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.



1	2	3	4	5	6	7	8
C	D	E	F	G	A	B	C

※ 용의자 4 프로필

- 이름: 프레디 브라운
- 성별: 남성
- 나이: 52
- 가족: 아내, 두 아들
- 여행 목적: 여행
 - 사망 추정 시간에는 504호의 주인인 헨리 워커와 얘기를 했다고
 - 옷이 전부 새거다
 - 다부진 손과 몸집에 하얀 피부가 특징
 - 그의 직업은 광부

- 그의 수염은 가짜
 - **피해자에게서 정체를 숨기려 했다**
- 그는 탄광 매몰 사고에 휘말릴 뻔했으나 그럴지 않고 살아남았다
 - 이 사건으로 자신의 친구와 다이아몬드를 잃었다
 - **그는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와 친구를 잃은 정황이 있고,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프레디 브라운은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충분히 있다**

※ 505호

- 나무상자
 - 다섯 개의 나무 상자, 비어있다
- 책상
 - 서류
 - 재고 목록, 급여 목록, 청구서, 메모 등등
 - 청구서: 다이너마이트 추가 주문, 코퍼 맥그리거의 사인
 - 메모: '내 상자에 다섯 다스의 술주전자를 포장해라(Pack my box with five dozen liquor jugs).'
 - 서랍
 - 크립텍스와 메모
 - 크립텍스 안에는 사진
 - 세 남자의 사진, 한 남자의 손에는 팔면체 광물이 들려 있다
- 옷장: 안에는 가발걸이가 있었다
 - 그의 수염은 가짜이다

※ 용의자 5 프로필

- 이름: 에즈메이 요한슨
- 성별: 여성
- 나이: 23
- 직업: 배우
- 가족: 독신(시골에 모친 한 분)
- 기타: 붉은 머리
 - **금발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염색을 풀었다고**
 - 크루즈를 타고 관광과 프랑스 스케줄을 소화하려고 했다고 한다
 - **그녀는 5월달에 스케줄이 없었다**
 - 향수냄새가 강함
 - 옷을 잘 입음
 - 술과 담배를 즐김
 - **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이 아닌 피해자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.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고 아직도 그 일을 잊지 않은 그녀라면 이것은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다**

※ 506호

-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다
- 책상: 시가 상자, 술병, 다이어리, 종이
 - 시가는 반쯤 피웠다
 - 다이어리에는 빼곡히 스케줄이 적혀 있다
 - 5월달에는 스케줄이 비어있다
 - **5월 2일에 표시되어 있다**
- 옷장: 다양한 옷들
 - 위쪽에 숨겨둔 공간이 있었다

- 서류 봉투: 알랭 요한슨의 기록
 - 자살처럼 꾸며졌지만 사실 코퍼 맥그리거에 제거된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자료
- 원탁: 엮어진 달력, 모델 사진
 - 달력: 5월 2일에 표시
 - 모델사진: 에즈메이 요한슨 본인의 사진
 - 뒷면에 숨겨진 공간
 - 어렸을 때 찍은 화목한 가족 사진
 - 아버지를 기억하며.02.05

(마지막 갱신: 355 레스)